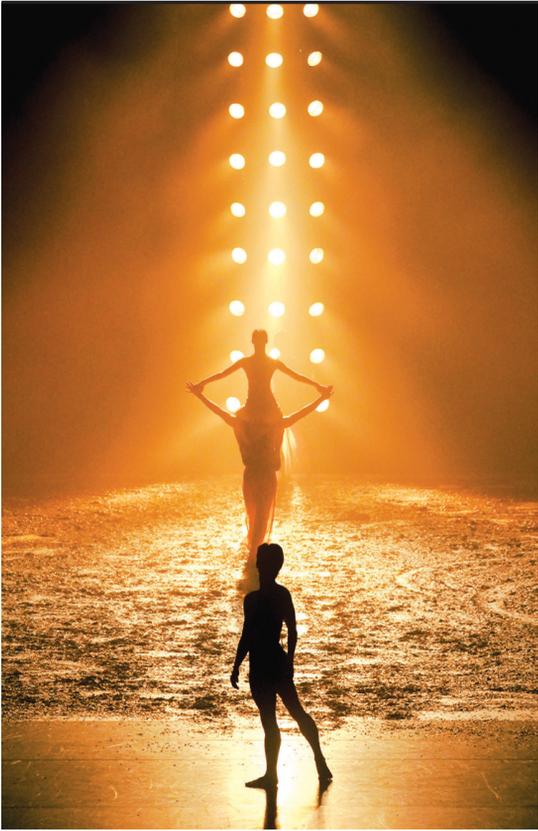


5·18 공연 'DIVINE' 감동 다시 찾아온다



컨템포러리 발레 'DIVINE'. <광주시립발레단 제공>

5·18 민중항쟁 44주기를 앞두고 관련 작품들이 공연가에 쏟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7월 초연 후 무용계와 평단의 찬사를 받고 있는 광주시립발레단 브랜드 공연 'DIVINE'은 단연 이목을 끈다.

지난해 'DIVINE'이 선사했던 감동은 아직까지 여운으로 남아 있다. '민중화 운동'을 주제 삼아 75분 동안 전개되는 3개 섹션 10개 악곡은 당시 광주 시민들의 민중화에 대한 열망과 좌절된 아픔을 투사했다. '내가 침묵한다면', '강물빛', '기도' 등 악곡은 1980년 5월 압제의 광주를 환기시켰고, 무용수들은 '발레'를 매개로 희생 영령의 부활과 회복을 기원했다.

지난해 초연 후 무용계와 평단의 찬사를 받았던 브랜드 공연 'DIVINE'이 관객들을 다시 찾아온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박경숙)은 5·18 영령들의 분노, 고통, 희생, 치유의 메시지를 원초적 몸짓으로 해석한 컨템포러리 발레 'DIVINE'을 재연한다. 오는 24일(오후 7시 30분), 25일(오후 3시, 7시) 총 3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광주시립발레단 브랜드 공연 24~25일 광주예술의전당 5·18 영령들의 치유 메시지·민중화 염원, 몸짓에 담아

작품은 광주 5·18의 상흔은 물론 아·팔전 쟁, 우·러전쟁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사를 '발레'를 통해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역사적 트라우마인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창작한 작품이지만 구체적인 스토리와 캐릭터는 의도적으로 작품 전면에 드러내지 않는다. 관객들을 압도하는 송고한 미장센만으로 당시 광주의 비극을 재현한다는 취지에서다.

안무는 광주 출신 주재만 안무가가 맡았다. 프랑스 바느레 국제무용축제에서 최우수 무용수상을 받았으며, 뉴욕 컴플렉스 발레단 발레마스터(겸 부예술감독, 전임 안무가) 등으로 활동했다. 미국 포인트 파크대 발레 교수를 맡고 있다.

5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출연진은 바닥을 기어다니거나 거대한 암막 커튼과 혼연일체가 되는 등, 자유를 향한 몸부림과 애도의 군

무 등을 펼친다. 미니멀하지만 압도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안무, 비극적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조명을 비롯해 세트, 소품 등을 심미적으로 활용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1장 '자유'는 무용수들이 바닥에 흠뻑 젖은 젓가루를 내려치거나, 서로를 끌고 다니는 등 컨템포러리한 몸짓이 돋보인다. 민주화 열사들이 투옥됐던 쇠창살을 연상시키는 주홍빛 조명과 어우러지는 군무도 만날 수 있다. 드뷔시 '구천을 떠돌고'를 비롯해 쇼팽 곡 '외로운 길' 등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2장 '어둠 너머'에서는 슈베르트의 '기도' 등 4개 악곡을 만날 수 있다. 물고기나 새의 몸짓을 흉내내는 듯한 무용수의 안무는 폭압에 짓눌렸던 광주의 아픔을 순수한 존재와 오버랩하는 듯하다.

마지막 3장 '성스러운 인류'도 압권. 천사 같은 유니타드 원피스와 레오타드 드레스 등

을 입은 무용수들은 성결한 종소리를 배경으로 희망의 도약을 반복한다. 헨리크 고레츠키의 '신성한 사람들'에 맞춰 고통과 연대의 몸짓을 표현한다.

한편 'DIVINE'은 지난해 '월간 몸'이 주관하는 제30회 무용예술상 작품상을 수상했다. 평단은 "극적 서사를 배제하고 환상적이고 잔혹했던 시간들을 발레 언어로 표현했다. 정치적 파국과 구원, 고통과 연대의 몸짓을 상서롭게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광주시립발레단 박경숙 예술감독은 "호평을 받았던 독창적 작품 'DIVINE'으로 관객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 뜻깊다"며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관객들에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5·18 영령들과 광주 시민을 위무하는 '예술적 감동'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티켓링크 예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강운 작 '공기와 꿈'

조선대 장미주간 특별기획 'AI시대, 예술은 무엇으로 사는가'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는 'AI'다. 많은 학자들은 우리 삶을 뒤바꿀 가장 큰 요인으로 AI를 꼽는다. 그만큼 AI는 전방위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를 변화시키고 있다.

예술 분야에서도 AI 등장은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AI가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쓰고, 곡을 작곡하는 것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과연 AI의 자장은 어디까지 미칠까. 혹자들은 아무리 AI가 발전을 해도 인간의 창의력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에 불과하다.

AI와 예술의 관계를 모색해보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조선대 미술관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AI시대, 예술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AI를

30일까지 조선대미술관 8명 작가에 4개 질문 제시 구성 AI 생성형 프로그램 활용 제작

모티브로 열린다. 특히 이번 기획전은 장미주간 특별기획전으로 마련됐으며 재학생은 물론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참여작가는 강운, 고자분, 김형숙, 박상화, 문선희, 신도원, 정광희, 신호운 등 모두 8명. 이들은 회화를 비롯해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채로운 분야를 출품했다. 30여 작품은 AI 생성형 프로그램을 활용해 제작한 작품부터 작가가 일일이 완성한 작품까지 아

우른다. 전시는 8명 작가에게 4개 질문을 제시해 이를 토대로 구성했다. AI이미지 시대, 미술계 작품 창작에 미치는 영향은? AI 생성 프로그램을 본인의 작품에 활용할 의향이 있다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등이다.

'구름 작가'라 일컫는 강운 작가는 '공기와 꿈'의 연작을 보여준다. AI 생성형 도구를 활용해 그린 작품은 화사하면서도 경쾌하다. 직접 그려서 완성한 작품, 구름 형상을 만드는 수증기 입자를 픽셀로 해석한 작품, 챗 GPT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미지 등 다채롭다. 제목이 말해주듯 공기와 꿈은 무정형의 대상이지만 그것이 작품으로 완결되기까지는 무한한 가능성의 과정을 거친다.

박상화 작가의 '미래도시-광주'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오늘날 기후위기, 환경위기의 양상을 투영한 작품은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훼손을 경고한다. 옛 전남도청과 분수대 주변이 온통 호수로 차버린 모습은 환경대재앙의 단면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작가는 작품을 통해 AI를 활용한다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묻는다.

한편 이보라 학에서는 "이번 전시는 AI가 우리 삶을, 우리 지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깊은 사유를 하게 한다"며 "저마다 8명 작가의 개성적인 작품들을 장미주간에 관람하며 AI가 주는 의미와 미래의 모습들을 그려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소외계층에 '문화 보따리'

동구문화관광재단,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지난 8일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호 해피 데이' 행사 모습.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동구 관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를 위해 활짝 펼쳐지는 '문화 보따리'.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8일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문화 보따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재단이 관내 문화소외계층(가정과 시설 등)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공연을 가까이에서 선보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화 보따리' 사업은 작년 시범사업 추진 이후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한다. 지역 문화예술인 공연팀 등이 출연해 아코디언 연주, 창작 퓨전 무용을 비롯해 트로트 노래 공연, 장구 난타 등 참가자들이 좋아할 만한 레퍼토리로 꾸려진다. 동구 관내 문화소외계층과 지역예술인을 매칭해 올해 총 22회차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재단 문화진흥팀 안유진 주임은 "아버이날을 맞이해 1시간 가량 열린 호응을 보내주시는 어르신들에게 '효'와 '행복'의 마음이 잘 전달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한해 펼쳐지는 공연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취지에 공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심상적 풍경: 자연으로부터'

김일권 전남대 미대 교수 개인전, 14일까지 갤러리 소헌

심상(心象)이라는 말은 다의적이다. 깊고 오묘하다. 사전적 의미는 '감각에 대한 자극 없이 의식에 떠오르는 영상' 또는 '상상을 매개로 정경을 마음에 그리는 것'을 뜻한다. 예술가들에게 심상은 창작을 위한 중요한 동인이다. 의식에 그리는 또는 마음에 떠오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변화무쌍한 창작의 기제로 작용한다.

심상과 연계되는 대상은 대개 풍경인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예술가들은 마음의 눈으로 풍경을 본다.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심상으로 보는 편이 훨씬 깊고 다양한 의미를 창출한다.

김일권 전남대 미대 교수가 '심상적 풍경:

자연으로부터'를 주제로 전시를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14일까지 갤러리 소헌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풍경화를 소환한다. 그러나 익히 알고 있는 풍경화가 아닌 관람과 이해를 넘는 '심상'으로 바라봐야 보이는 '풍경'이다. 몽환적이면서도 신비로운 풍경은 보는 이에게 마치 '풍경 속으로 들어오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작가는 동양화의 특징인 여백을 살리면서도 서양화의 색감에 주목한다. 자연 속의 어떤 이미지를 포착해 오래도록 내면의 발아 과정을 거친 듯 고요함과 무한함이 느껴진다. 구상과 추상의 경계가 모호한,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투영한 데서 획득되는 생명력



'무제'

이다. 각각의 작품 제목 또한 전시 주제와 일맥상 통한다. '무제'는 제목이 없다는 것이 아닌 너무도 많은 느낌과 상상과 사유를 함의하고 있다는 뜻일 게다. 무제가 지닌 개방성, 원초적인 무정형의 미래 지향성은 결국 심상적 풍경으로 수렴된다.

일찍이 로버트 모건은 김 작가의 작품에 대

해 "그의 풍경화는 구상과 추상 사이의 연결점이며, 지렛대이고, 저울의 균형대이며, 미래를 투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며 "그의 연작은 일종의 예언자적인 지진계이며, 의도적인 계산을 배제한 경고이며, 자신에 대한 사고와 감정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평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음악극 '빨간 풍선'을 타고 떠나는 동화같은 이야기

ACC재단, 25~26일 어린이극장

어린이와 풍선의 이색적인 우정 이야기.

여섯살인 파스칼과 빨간 풍선은 사이가 돈독한 사이다. 그러나 동네 아이들은 이 둘 사이를 질시한다. 어느 날 아이들은 풍선을 빼앗아 터트리고 마는데...

누구나 풍선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한번쯤 풍선을 타고 어딘가로 날아가고픈 꿈을 꿔본 적도 있을 것이다.

유년 시절에 가졌을 법한 동화 속 상상들

공연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영화와 음악이라는 장르가 물 흐르듯 하나로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ACC재단)이 오는 25~26일 어린이극장에서 펼치는 음악극 '빨간풍선'이 그것. 공연은 ACC 어린이극장과 랫츠 플레이가 공동 기획했다.

이번 작품의 원작 '빨간풍선'은 프랑스 거장 알베르 라모리스감독의 단편영화다. 칸영화제 단편 부문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할 정도로 작품상을 인정받

았다.

특히 이번 작품은 지난 1950년대 프랑스와 2024년 현재 한국을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역동적으로 펼쳐진다. 과거와 현재, 프랑스와 한국 등 시공간을 뛰어넘어 전개되는 서사는 흥겨움과 상상력을 선사한다. 시네마 음악극답게 발달한 음악과 배우들의 역동적인 몸짓이 자연스럽게 섞여들며 이색적인 하모니를 만든다.

관람료 1만5000원이며 5세이상 관람 가능. 자세한 내용은 ACC재단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네마음악극 '빨간풍선' 장면. <ACC재단 제공>